

「일제 통치 하 대만과 조선의 비교 고찰
—대만의 ‘친일’ 감정과 한국의 ‘반일’ 감정의 원류 모색」

글쓴이: 黃美惠

번역 :강지훈

제 10 회 One Asia 국제 강좌는 본교 서흥경 총장님의 특별 요청으로 일본 조치(上智)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오사다 아키후미 교수님(長田彰文) 찾아와 주시어 강연을 했습니다. 오사다 교수님은 일본 근현대사, 아시아-태평양 국제정치사 영역의 유명한 학자이시며 한국 서울대학교,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계셨다가 작년 3 월엔 본교 정치학과에서 1 년동안 객원교수로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Theodore Roosevelt 와 한국』 (未來社、1992 年), 『일본의 조선 통치와 국제관계- 미국과 1910 년부터 1922 년의 조선독립운동』 (慶應義塾大學出版會、2013 年) 등이 있습니다. 오사다 교수님은 본교에 계신 1 년 동안 대만 근현대사 조사와 사회 현상 관찰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강좌의 주제를 「일제 통치 하 대만과 조선의 비교 고찰—대만의 ‘친일’ 감정과 한국의 ‘반일’ 감정의 원류 모색」으로 정하셨습니다. 오사다 교수님은 일반적으로 '친일·반일'의 이분법적 이해와는 달리 사학의 실증적 고찰과 탈식민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본교생들에게 큰 깨우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사다 교수님께서서는 대만-일본 그리고 한국-일본 역사에 쉽게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우선 일본과 식민지였던 대만과 조선의 통치 실태를 고찰하여 전후 대만의 ‘친일’ 과 한국의 ‘반일’ 요인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오사다 교수님의 강의내용은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네덜란드와 청나라의 통치, 청나라가 일본에게 대만을 영토를 할양하는 여러 경험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대만의 독립성' 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통치가 끝난 뒤, 새로운 통치자로서의 중국국민당이 민주화되기 전의 대만 통치가 일제보다 더욱 가혹하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는 1947년 발생했었던 2·28 사건입니다.

일본의 대만 통치가 시작한 것은 1895년입니다.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 및 평후 열도를 일본에게 할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수의 대만 주민이 고향인 대륙으로 돌아갔지만 대다수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대만에 남아서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강력한 불만이 있고, 청나라가 자신을 버린 ‘배신’에 대해서도 역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이어 독립을 돕고자 했습니다. 각국이 각자의 외교 상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국가가 일본의 요동 반도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기대에 당경송(唐景崧), 구봉갑(丘逢甲)이 5월 25일 「대만 민주국 독립선언」을 발표했으나 구미 각국이 대만민주국을 인정하거나 지원하는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5월 말에 일본군이 지룽의 아오디(澳底)에 상륙해서 타이베이(台北)로 진군하였습니다. 10월 21일 일본군이 타이난성(台南城)에 진입하면서 “대만민주국”이 전면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민족 독립 투쟁 과정에서 대만인의 민주 의식과 향토 의식이 일깨워졌습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청일전쟁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의 러일 전쟁승리로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였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한일 보호 조약」(을사 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었고,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寺內正毅)의 '무단통치(武斷統治) 정책'에 따라 '헌병경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조선 내부에서는 불만이 축적되고 있었고, 해외 각지에서는 독

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조선 통치가 '개혁' 되는 원인이 1919년 발발한 3·1 운동과 무단통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당시 하라 다카시(原敬) 정권의 무력 강제 진압이 미국의 비난을 받았는데, 일본 외교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이를 수긍하고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조선 총독부 관제(官制)가 수정되고 대만 총독부의 관제도 수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945년까지 조선 총독이 된 사람이 모두 무관 출신이지만, 그에 반해 대만 총독은 아카시모토지로(明石元二郎, 1919년 10월) 이후부터 1936년까지 17년간 9명 총독이 모두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문화 통치'와 '일시동인(一視同仁)주의'를 실시하여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했습니다. 1926년에 설립된 총독부 신청사를 세우고 전후 미군 정청사로 사용되다가 한국정부청사 그리고 국립 중앙박물관으로도 쓰이다가 1996년 철거되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총독부가 '황민화 정책'을 실시하여 신사 참배, 일어 사용, 창씨개명 등의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1938년에는 지원군제를 실시하였으며, 1944년에 징병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정신대'를 담당하게 되고 위안부가 된 여성도 상당했습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 이후, 만주 및 조선 북부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해왔고, 일본이 투항한 후 미군정 시절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을 남과 북으로 따로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대만에서 '내지연장주의'를 시행합니다. 조선과 같은 '황민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조선처럼 철저히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1944년 10월 이후 대만에는 미군의 공습

이 자주 있었는데, 특히 1945년 5월 31일의 타이베이 대공습으로 대규모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자면 조선은 미군의 대공습이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 기구, 인사, 법제도 등은 일찍이 15년 전에 성립된 대만총독부를 본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자 간 공통점은 총독이 행정, 사법,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며 무관총독기(武官總督期)에 군사권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 식민지 총독들은 모두 천황이 직접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일본 중앙정부가 대만총독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데 조선 총독에 대한 지시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총독이 내각 총리대신과 같은 상주권(上奏權)이 있으나 대만총독은 상주권이 없습니다.

오사다 교수님의 결론은 일본이 대만을 50년, 조선을 35년을 통치하고 이용하려는 최대의 목적은 ‘일본식 근대화’ 사상을 도입하는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인이 대만과 조선사회에서 소수파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식민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세계 대전 후에 미국이 대만과 한국에 끼친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미국식 근대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일본식 근대화’가 적응하기 쉬웠으며, 어느 정도 내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강제 합병을 당한 이후, 일본의 압박적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본을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본 문화와 ‘한류’에 대한 인식으로 볼 때 한국이 역사적, 정치적 문제에 있어 ‘반일’ 경향이 있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비반일’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이 한국의 ‘반일’에 대한 과잉 해석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정당과 국민이 어느 정도 있지만 대만 대다수 국민이 일본문화에 대해 우호적이며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는 비우호적이다. 따라서 일본인은 대만의 ‘우호함’에 대한 역시 과잉 해석을 자제해야 하고 남용을 더욱 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문과 3학년 賴相宇학생이 위안부 등의 역사 화해 문제를 질문하였고, 대기과학과 4학년 翁一勻학생이 지금 일본 국민이 자국이 대만과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오사다 교수님의 이번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와 대화를 자극하여 역사적 시야를 넓혔습니다.